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한국 YWCA

이달의 생각
 광복 70년, 분단 70년 평화를 향한 YWCA 순례 행진

특집
 201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이달의 현장①
 2015년 Y-틴 전국협의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다큐멘터리 영화 '퀴바디스'





1968, 김정숙

“명동성당을 마주보고 서 있는 연합회 빌딩에 들어서면 현관 밖의 붉은 벽돌에 새겨진 3인의 여인상이 눈길을 끈다. ‘한국YWCA연합회’라는 간판과 함께 건물의 상징으로 되어있는 이 조각상은 새로운 회관을 건립하면서 서울Y 이사로서 있던 조각가 김정숙이 만든 작품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이자 전국 52개 회원YWCA가 있는 한국YWCA연합회 본부 입구의 이 조각에 새겨진 세 사람의 천사는 한국YWCA 창시자 3인인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을 상징한다. 가운데 날개를 펴고 손에는 각기 비파, 향유, 횃불을 든 것으로 이는 한국YWCA의 상징 지(知), 덕(德), 체(體)를 구현한 것이다.” (『한국YWCA 80년사』 411쪽~412쪽 중에서 일부 발췌)

YWCA OF KOREA

한국 최초의 여성 조각가인故김정숙(1917-1991)은 박에스터 선생의 제안으로 건물 벽면에 조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의 저서 『나의 교유록(交遊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YWCA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중요한 또 한 분은 박에스터 여사이다. 한국YWCA의 산 역사(歷史)라고 할 만큼 YWCA 활동에 공헌이 지대했던 그는, 나에게 YWCA 정신을 새삼 일깨워주곤 하던 분이다. YWCA 연합회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그의 숨은 노력이 많았다. 돈을 쌓아놓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없는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 가며 벌여 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정난에 허덕여야 했고, 나중엔 빚 독촉에 물려 에스터 여사 자신이 캐비닛 속에 숨은 촌극까지 빚어졌다. 내가 그때 회관의 벽면 부조(浮彫) 제작을 맡았던 것도 에스터 여사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었다.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도중에 그는 자포자기하여 중지하자고 한 일까지 있었다. 초창기 YWCA의 가난한 사정은 나 역시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여자들 하는 일이란 이렇다’는 말을 들을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일을 계속해 갔다. 결국 서로서로 부축해 가며 다시 일어서 YWCA 건물은 준공을 보고야 말았던 것이다.”



표지이야기

고리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YWCA 회원들의 마음이 십자가마다 담겨 있습니다. 눈물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2015년 탈핵 세상을 위한 다짐을 굳건히 해봅니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광복 70년, 분단 70년 평화를 향한 YWCA 순례 행진 차경애
05	신년예배 너도 나처럼 방원철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1·2월의 한국YWCA 유성희
	특집 201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08	한눈에 보는 2015년 정기총회
10	2015년 회원YWCA 신입회장 소개
12	탈핵 운동과 함께 한 YWCA 정기총회 현장 스케치
14	지역의 탈핵운동 부산YWCA '고리1호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천현진
	칼럼 평화 평화, 통일, 그리고 복음 한완상
16	청년 '괜찮아'가 괜찮으려면 오연호
18	여성 여성 노동: 신화와 현실 이나영
20	
22	탈핵 이슈와 동향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정서연
24	이달의 현장 ① 2015년 Y-틴 전국협의회 편집실
26	이달의 현장 ② 한국YWCA의 운동을 알리는 우리는 대학생 아나운서 김민애 · 김민지 · 이연주 · 박은진
28	이달의 현장 ③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토론회 개최 배정미
3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다큐멘터리 영화 '퀴바디스' 최대광
32	세계YWCA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최지혜
34	원로에게 듣는다 김영정, 김현자 명예연합위원에게 듣는 세계YWCA 이야기 편집실
36	회원YWCA 모금현장 생명의 바람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시작되길 전주YWCA
38	북한어린이돕기 거제YWCA의 작은 실천 나눔 김수연
40	연합회 소식
43	회원YWCA 소식

3월 한국YWCA 주요일정

- 2월 21일~3월 2일 회원YWCA 중견 사무총장 해외연수
- 3월 2일~6일 세계YWCA 이사회
- 3월 6일~3월 11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
- 3월 19일~20일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3월 25일 1분기 복지관자활노인센터 기관장 연구모임
- 3월 25일~27일 YWCA 1단계 실무자교육

광복 70년, 분단 70년 평화를 향한 YWCA 순례 행진



글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새 소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갑절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금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인 동시에 남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93년 전 시작된 한국YWCA가 이 뜻 깊은 해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평화 운동의 해를 맞이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4년 신년사에서 “건물은 높아졌지만 품격은 낮아졌고, 돈 버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회”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지역간·세대간·남녀간의 갈등을 화합과 섬김을 통해 해소하는 일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이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다.

그동안 YWCA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신앙적 자세로 평화운동을 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1996년부터 시작한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운동’은 YWCA 평화통일 운동의 두드러진 사업으로 손꼽힌

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일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며, 이 운동에 전국 10만 Y회원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분단에 따른 부작용과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Y회원들이 평화통일 운동에 더 앞장서야 할 때임을 절감한다.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전개한 탈핵운동이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핵발전소는 근본적으로 원자폭탄의 개발과 벨레야 뿔수 없는 관계이다. 핵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핵무기이고 이를 천천히 발산시켜 전기에 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발전이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발전의 뿌리는 같다. Y가 전개하고 있는 탈핵운동에서 ‘원자력발전소’라는 용어 대신 ‘핵발전소’로 말하는 이유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거짓 신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핵발전과 평화운동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반대하고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남북통일을 비롯한 평화로운 세상을 허락하신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Y회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상이 앞당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너도 나처럼

글 | 방원철 담임목사(성광교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운동을 하는 Y의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회원들에게 실제로 마음의 평안이, 깊은 평화가 있는지 묻고 싶다. 평화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점점 더 평화가 넘치고 있는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는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 대신 증오와 다툼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른다. 평화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절망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 다대오 유다(가룟인 아닌 유다)가 성경에 나온다. 유다는 그런 고민을 혼자 가둬두지 않고 솔직히 예수님께 토로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듣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

14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랏소’인데 ‘타랏소’는 마음이 뒤흔들리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뜻한다. 마음 속에 근심(trouble)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

게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내 마음에 평화(peace)가 가득 차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된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 평화를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방법을 추구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님은 부딪히고 저항하는 태도 대신에 채찍을 맞고 침뱀을 당함을 통해 스스로가 죽어야만 평화가 이뤄진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십자가의 사랑과 거기서 오는 평화를 몸소 보여주셨다.

새해에 특별히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 해를 살아갈 여러분에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기에 더욱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 지금보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들이,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YWCA 평화운동이 올해는 이전과 다른 놀라운 평화운동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기대해 본다. 

1·2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연합회 사무총장)

2015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한국YWCA 평화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과 2월의 한국YWCA는 회원YWCA의 정기총회에 이어 연합회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총 25명의 회원YWCA에서 신임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5부지역위원장도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13명의 신임사무총장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월 신임회장 연수를 시작으로, 5부 지역위원장 훈련, 신임사무총장 연수가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력이 허락하신 임기동안 회원YWCA가 Y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한국YWCA는 2014년에 이어 탈핵을 전국운동으로 전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YWCA는 전국적인 탈핵 캠페인과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제정, 에너지 관련 국가정책의 개선 제안 등 에너지 문제에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사회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부산 시장의 공약인 고리 1호기 폐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한국YWCA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2개월 간 YWCA의 10만 회원 서명을 전개했습니다. 회원Y의 서명지가 도착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분 한분의 염원을 소중하게 받았습니

다. 10,000명이 넘고, 5만을 넘어서 마감일에 9만이 넘는 서명지를 받은 저희들은 진정으로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YWCA 회원들의 힘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리 1호기 앞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회원Y의 대표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015년에도 한국YWCA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에너지 기본계획수립과정의 참여, 청년들과 함께 이루는 탈핵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5년은 세계YWCA회원대표들이 4년간의 세계Y정책을 결정하는 세계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올 11월에 열리는 세계대회는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을 주제로, 2035년까지의 전략계획을 채택합니다. 한·일 양국의 YWCA는 ‘핵 에너지와 핵무기를 반대하는 공동의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20여 명의 세계대회 참가 대표들과 함께 국제운동체의 일원으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의 운동을 함께 이루는데 한국YWCA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핵운동과 함께 한국YWCA는 ‘성인지 관점’과 ‘평화 운동’을 리더십 훈련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평화연구포럼과 지역의 성인지 정책 교육을 진행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실천은 달라집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관점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을 삶의 신조로 일상을 살아갈 때,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공동체 운동인 한국YWCA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난 93년의 한국YWCA 역사는 돌봄과 살림이 필요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필요한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한국YWCA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한눈에 보는 2015년 정기총회
- 2015년 회원YWCA 신임회장 소개
- 탈핵 운동과 함께 한 YWCA 정기총회 현장 스케치

한눈에 보는 2015 한국YWCA 정기총회



- 최현범 목사(부산중앙교회 담임)
- “창조세계 속의 사명”(창세기 1장 26절~31절)
- 핵은 반기독교적인 무기이며,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에너지이며 이 세상에서 핵을 없애고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세계를 지킬 것을 소망함



- 토의안건**
1. 지역위원장 선출의 건
 2. 아카데미 지역센터 선정 및 운영 논의의 건
 3. 연합회·지역위원회 간담회 운영의 건
 4. 정회원YWCA 승격준비 관련의 건
 5. 광복 70주년 기념 YWCA 평화운동 관련 제안의 건



- 2015년 2월 5일(목) 고리원전 앞 진행
- 앞서 2월 3일(화)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YWCA 10만 서명 전달
- 자세한 내용은 12쪽부터

만남

개회예배

주제강연

사무회의

5부지역 위원회

아침명상

고리원전 폐쇄촉구 기도회

- 2015년 2월 4일(수)~5일(목)
-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 연합회 실행위원 등 17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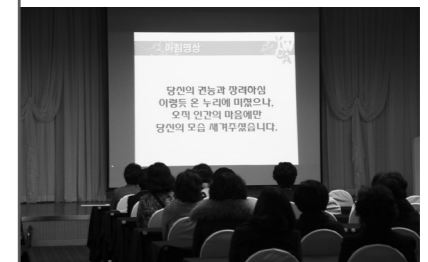
- 김해창 교수(경성대 환경공학과)
-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원전 핵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장하는 '원자력은 값싼 에너지'라는 신화에 대해 비판
- 탈핵은 가능하며, 이는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환, 즉 '탈핵'과 '에너지분권'으로 가능하다고 역설함



- 안건1. 201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의 건
- 안건2. 회원YWCA 가입 및 운영내규 개정의 건
- 전체공지: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도화(안)' 발표



- 창조세계의 보전과 핵 없는 세상
- 마음을 깨우는 말씀 : 에스겔 28:2, 시편 121:1-2, 신 30:19
- 고백의 찬송, 영성묵상, 영혼의 고백, 마음의 기도, 확신과 응답의 찬송, 침묵의 결단과 파송



※ 내용순서
생년월일 / Y경력 / 한줄다짐

2015 회원YWCA 신입회장

강릉YWCA **김희숙**

1956. 11. 15
2008~2014 강릉YWCA 이사 (부회장, 재정위원장, 가족복지위원장)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을 다하는 YWCA 생명나눔미, 세상살리미로 이 세상의 회복을 소망한다."

고양YWCA **김춘애**

1954. 1. 18
1982~현재 YWCA 체육강사
1996~2009 고양YWCA 이사
2000 서울YWCA 보건 체육부 위원
2010~2014 고양YWCA 부회장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될수 있도록 믿음에 의지하며 주신 사명 순종하며 잘 감당하겠다."

광명YWCA **김진**

1971. 6. 24
2005~2008 광명YWCA 성폭력 상담소 미술 치료사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있는 일이다."

광양YWCA **장화섭**

1951. 9. 8
2002~2014 광양Y 이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앞세워 열심히 할 것이다."

광주YWCA **정윤순**

1950. 7. 9
1987~1994 광주Y 교육부, 청년대학부 위원
1995~1997 광주Y 직업개발부, 가정법률 이사
1999~2008 광주Y 청소년 센터 이사
2006~2009 광주Y 신협협동조합 이사장
2009~2014 광주Y 부회장
"낮은 자세로 이사, 직원, 회원들의 믿음을 늘 받으며 경청할 것이다."

김해YWCA **정재연**

1952. 3. 2
2007~2013 김해Y 이사 (사회문화부위원, 부서기)
2013~2014 김해Y 사무총장
"부르심의 감격을 간직하며, 섬김의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남양주YWCA **하행여**

1964. 5. 4
2005~2007 남양주Y 직업개발부 간사
2007~2009 남양주Y 위원
2010~2014 남양주Y 이사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논산YWCA **김영란**

1964. 7. 5
2009~2014 논산YWCA 이사 (인력개발위원장)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담대함을 가지고 힘 있는 아침처럼 나아가겠다."

동해YWCA **전경애**

1962. 3. 16
2005~2008 동해Y 홍보출판위원장
2009~2012 동해Y 이사 (서기, 회계)
2013~2014 동해Y 부회장 (재정위원장 겸임)
"처음도 사랑, 나중도 사랑으로, Y정신 안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도록 나누겠다."

마산YWCA **차혜영**

1953. 5. 18
2012~2014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창원시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마산Y 이사
"믿음 안에 굳게 세우며 사랑의 끈으로 묶어가는 마산Y 회장이 되겠다."

목포YWCA **이혜경**

1951. 01. 08
1985~1999 목포Y 이사
2000~2012 목포Y 사무총장
2013~2014 목포Y 부회장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Y뿐! 하나님과 Y 앞에,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는 회장이기를"

부천YWCA **김영순**

1965. 12. 13
2003~2008 부천Y 이사
2009~2014 부천Y 부회장
"부천Y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한다. 사랑과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

서울YWCA **조종남**

1951. 1. 19
2009~2010 서울Y 제1서기이사
2003~2012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봉천종합사회복지관·노인문화부·자원봉사센터 위원장,인사·지도자양성위원회·정책위원회·복지사업단·모금개발부 위원
2013~2014 서울Y 제1부회장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분들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순천YWCA **강선임**

1954. 9. 19
1995~2002 순천Y 회원, 위원
2003~2007 순천Y 이사
2008~2014 순천Y 부회장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열심히 최선을 감당하겠다."

안동YWCA **김옥희**

1955. 9. 28
1997~2014 안동Y 이사, 부회장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 겸손히 순종하겠다."

안양YWCA **정성옥**

1953. 8. 22
1997~2010 안양Y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
1998~2000 안양Y 근로복지위원회 위원
2000~2014 안양Y 이사,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복지사업위원회 위원장,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서기이사, 합창단 단장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안양Y 회장 일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원주YWCA **김혜숙**

1954. 8. 18
2006~2014 원주Y 이사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하겠다."

의정부YWCA **조영주**

1952. 8. 10
2008~2014 의정부Y 이사
2013~2014 의정부Y 제1부회장, 사회개발부 위원장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회생의 삶으로 섬기겠다."

인천YWCA **김말숙**

1962. 6. 27
2003~ 인천Y 이사
2009~2010 가정폭력상담소운영위원장
2011~2013 부회장 및 보선회장
2011~2014 재정 건물관리위원장
2014 요양원재가복지센터운영위원장
"주님이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제주YWCA **문영희**

1954. 3. 6
1985~1991 제주Y 사무총장
1993~2004 제주Y 사무총장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잘 순종하며 감당하겠다."

제천YWCA **이연경**

1962. 10. 9
2002~2014 제천Y 이사, 서기이사, 부회장
"고난을 통해 얻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더 선한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한다."

춘천YWCA **표석영**

1963. 2. 22
1976~1978 서울Y-틴, Y-틴 전국협의회 부회장
2002~2014 춘천Y 이사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춘천Y 회원 모두를 보듬겠다."

충주YWCA **한경식**

1949. 4. 24
2007~2010 충주Y 회계이사
2010~2012 충주Y 회장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감사하며 Y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파주YWCA **김인현**

1967. 11. 27
2007~2008 파주Y 이사
2009~2013 파주Y 부회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겠다."

포항YWCA **김주원**

1957. 6. 20
2000~2012 포항Y 위원 및 이사
2013~2015 포항Y 부회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분을 보이겠다."

5부지역위원장 소개

 경기지역위원회 고양YWCA 김춘애	 동부지역위원회 대구YWCA 최정숙
 북부지역위원회 인천YWCA 김말숙	 서부지역위원회 여수YWCA 김숙자
 중부지역위원회 대전YWCA 오은숙	

고리1호기 폐쇄 10만 서명 전달 십자가 행진하며 간절히 기도해

글 | 편집실

2월 3일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10만 회원 서명 전달식 (부산시청)

한국YWCA는 부산에서 열리는 2015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2월 3일(화) 부산 시청 2층 정문 앞마당에서 ‘노후핵발전소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YWCA 10만 서명전달식’을 가졌다. 이는 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3주기인 2014년 3월 11일부터 매주 화(火)요일에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벌이며 ‘수명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데에 대한 서명 집결로 ‘안심도시 부산,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장공약으로 내건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약 실현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고리1호기 폐쇄 서명전달식은 오후 1시 20분부터 부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의 상황과, 고장과 사고가 잦은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부산 시민의 삶,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계획을 발표한 산업부의 무책임한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열린 ‘10만 서명 부산시장 전달’은 부산시청 7층 시장접견실에서 연합회 차경애 회장을 비롯해 부산YWCA 하선규 회장, 진주YWCA와 사천YWCA 회장과 이사 등 20여 명이 고리1호기 폐쇄의 염원을 실은 전국 9만 7백17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고리원자력1호기는 여러 전문기관에서, 정부에서 안전하다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고리원자력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에 다시 연장해서 10년을 가동하는 상황이다. 2017년도에 꼭 폐로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월 5일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도회와 십자가 행진 (고리원자력1호기 앞)

한국YWCA 2015 정기총회 2일차인 2월 5일 오전 10시에는 노후핵발전소 고리1호기 추가 수명연장 반대와 폐쇄를 촉구하는 기도회와 폐쇄를 위한 십자가 퍼포먼스,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2015 한국YWCA 정기총회에 참여한 전국 52개 회원YWCA의 대표단과 한국YWCA 실행위원 및 활동가 200여 명은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앞에 도착해 노후핵발전소 고리1호기 추가 수명연장 반대와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안전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YWCA회원들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한국YWCA는 고리1호기 폐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인식하며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오는 2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월성1호기 또한 그 폐쇄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 고리1호기 폐쇄 촉구 한국YWCA 성명서 중에서 일부 발췌

성명서 낭독 이후 회원Y별로 미리 준비한 노란색 십자가를 들고 홍보관부터 고리원자력1호기 앞까지 약 10분여 간 거리행진을 했다. 연합회 실행위원과 회원Y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실무자들은 이 십자가마다 폐쇄를 염원하는 글귀를 적어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데 십자가를 지겠다는 한국YWCA의 결단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노란 십자가 물결을 촬영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들이 와 있었다.

고리 원전 앞에 도착해 대열을 가다듬고 먼저 ‘주 하

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올려드렸다. 이후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위험한 핵발전소 대신에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YWCA 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확신한다. 고리1호기 폐쇄는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YWCA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기도문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주 하나님,
이 곳에 모인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YWCA가 탈핵운동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이 숨 쉬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를 폐쇄하여 주소서.
오직 모든 속박과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정의, 평화, 생명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세상을 위해
절제된 삶과 탈핵을 향한 좁은 길로 나아가고자
이 시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늘을 열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핵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여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기쁨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리1호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글 | 천현진 (부산YWCA 시민운동팀 간사)

30년 수명을 다하고도 8년째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각종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리 1호기 반경 30km 안에는 부산과 울산 도심을 비롯해 34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고리 1호기 연장 운영과 폐쇄의 문제가 2014년 6.4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었을 만큼 부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문제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이미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 1호기를 오는 2017년 완전 폐쇄하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폐로 산업을 부산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YWCA는 핵발전소가 부산에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탈핵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의 다른 시민단체들보다 부산YWCA가 탈핵운동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유는 YWCA라는 정체성이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중도적인 이미지라는 장점 때문일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그간 부산에서의 다양한 반핵활동을 만들어 왔지만 보수층의 외면은 뿌리 깊었다. 부산 시민에게 고리1호기는 모두의 골치덩이였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신규 핵발전소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만으로 2015년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저지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부산YWCA가 주축이 되어 정치적 성향은 제쳐두고 여당, 야당, 종교계, 상공계, 직능단체까지 아우르는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본부)를 각 단체들에게 제안하는 결성제안회의를 1월 23일 개최했다. 이어 2월 10일 대표자회의를 거쳐 발족하기에 이르렀다(공동 상임대표 하선규 부산YWCA회장). 또한 같은 날 고리1호기 폐쇄 100만 청원 서명운동 캠페인을 시작하고 행정부시장과 대표단의 민관협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미 100여 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범시민본부는 부산의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을 더 심층적으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범시민본부는 주요 사업으로 고리1호기 폐쇄 10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3월 7일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대회와 5월 9일 고리1호기폐쇄 범국민대회를 결의하였다.

부산YWCA의 고리1호기 폐쇄를 향한 맹렬한 움직임이 범시민운동으로써 부산시민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고리1호기 폐쇄에 전방위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고리1호기 폐쇄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Column
컬럼

- 평화 평화, 통일, 그리고 복음 | 한완상
- 청년 ‘괜찮아’가 괜찮으려면 | 오연호
- 여성 여성 노동: 신화와 현실 | 이나영

평화, 통일, 그리고 복음

올해 2015년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의 해로, 사회 곳곳에서 평화를 향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한국YWCA의 역할과 Y 평화운동의 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제안을 평화 칼럼을 통해 만나본다.

글 | 한완상(전 통일부총리)

올해는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다. 식민지 고통을 36년간 겪었는데, 이 고통이 바로 조국 분단의 고통으로 이어졌기에 그 고통은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하다. 1945년 8월 초 강대국 간의 탐욕과 경쟁으로 우리 민족과 강토는 두 동강이 났다. 그리고 5년 후 한국전쟁이 터졌고 처참한 민족상잔이 있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되었으나 그 후 오늘까지 남과 북은 냉전이라는 참으로 피곤하고 괴로운 전쟁에 돌입했다. 아직도 서로를 주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 같은 분단의 비극을 즐기는 세력이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챙기는 세력이 있어 분단체제에서 갑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의 갑질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각 체제 내 민주주의, 인권, 복지는 상치받게 된다.

올해 이같은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 사라지게 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변화가 바로 분단극복과 평화만들기(peace-making) 운동이다. 지난 7년간 평화만들기 노력이 거의 없어진 듯 하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 통일과 평화가 이뤄질 듯한 분위기가 잠시 나타났다가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으로 헛희망을 잔뜩 불러일으키더니 지금은 잠잠해졌고, 또 남북관계는 심각하게 교착된 것 같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를 새삼 살려볼 필요가 있다. YWCA가 해야 할 사명을 확실히 찾기 위해서도 이 관계를 확인해야 한

다. 첫째로, 평화 프로세스 없는 통일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통일논의와 통일 노력은 반드시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평화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통일대박’ 주장에는 ‘평화과정’이 없다.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남북 당국 간에는 그간 불신만 더욱 조장되었다.

먼저 평화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평화를 남북간 협의를 통해 세워가려면, 서로가 상대방의 처지에서 성찰하고, 공감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역지감지(易地感之)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길로 들어서려면, 먼저 서로 격동시키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언론자유 미명 아래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서로 역지사지 하려면,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이 머리와 가슴을 열고 서로 선제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할 것이다.

통일이 민족의 공익이 되는 대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이 서로 대단한 양보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유있는 쪽에서 먼저 양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제적으로나 국제관계로 보나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또 개방적이다. 그런데 그간 남쪽은 그 여유에 값하는 양보를 별로 하지 않았다. 통일을 향한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남쪽에서 선제적으로 너그러운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선제적 양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제적 평화 만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왜? 예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선제적 사랑, 그것도 선제적 원수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된다. 영생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든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이천년 전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율법사도 꼭 그렇게 판단했다. 그 때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데를 새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결단과 실천의 참뜻을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우리 상황에서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이웃사랑은 쉽다. 왜냐하면 이웃은 나와 동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연, 학연, 혈연, 이념적 연관성 따위로 서로 가까이 지내고 도우고 역지사지하는 것은 상식 있는 보통 사람들도 다 해낸다. 예수를 따르는 이는 이 수준을 확실하게 넘어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웃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이다. 원수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이웃으로 만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만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웃사랑은 어느 종교에서나 소중히 여기는 가치요 덕목이다. 아니, 종교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은 사랑한다. 동창회, 향우회, 온갖 사교적 모임, 동문회 등에 열성이다. 이런 열성으로 평화가 세워지지 않는다. 평화는 오직 원수를 선제적으로 사랑할 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마태복음 5:43~45)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을 또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느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태복음 5:9)

이 축복이 이른바 8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나 청중들이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어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0:25~37). 이웃 사랑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당시 종교지도자들(제사장과 레위인)과는 확연히 다르게 사마리아인은 이 비유에서 자기를 원수로 증오하고 차별했던 유대인 피해자(강도 만난 자)를 정성으로 돌보았다. 역지사지, 역지감지를 넘어 원수를 선제적으로 사랑했다. 이것은 바로 역지행지(易地行之)다. 이 비유에서 을(乙)인 사마리아인이 갑(甲)인 유대인을 먼저 멋지게 사랑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참 평화가 싹트기 시작한다.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발악(發惡)의 악순환은 끝나고, 발선(發善)의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한다.

2015년 한국 크리스천은 이같은 발선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것이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일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다. 영생과 구원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조국에게 참 평화를, 참 해방을, 참 광복을 안겨다 주는 일에 앞서 가야 한다. 한국YWCA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괜찮아’가 괜찮으려면

글 |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지난 9월 펴낸 후 3달 여 동안 전국순회강연을 하던 중 한 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 선생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 수능 본 학생 중 90%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10%만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꼭 12월 3일에 와 주십시오.” 왜 꼭 그날 오라하나 했더니 이날 오전 10시경에 고3 학생들이 수능성적표를 받아 주니까 한 시간 후인 11시에 그들을 대상으로 위문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다. 독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150여 차례의 전국순회강연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제일 부담스러웠다.

학교에 도착해 교실 복도를 거쳐 강연장으로 향하는데 내가 우려했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남녀공학인데 한 여학생은 수능성적표를 손에 쥐고 창가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두 여학생은 교실에서 서로 부둥켜 앉고 있었다.

강연시작 3분전, 200여 명의 고3생들이 들어선 강연장은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강연을 이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두 번 하고 말을 이었다. “수능성적표가 마치 인생의 최종성적표인양 손을 부들부들 떠는 사회를 만들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서 담은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다른 길도 있다”면서. “덴마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30%만 대학에 갑니다. 굳이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가는 학생이 절반도 안됩니다. 1, 2년 사회생활을 하고 가고 싶을 때 대학에 가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은 세월호 사고 때 등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던가? “여러분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함께 바뀌십시오.”

그렇게 강연을 마쳤는데 3명의 남학생이 나를 쫓쫓 따라왔다. 페이스북 친구를 삼아달라고 했다. 나는 복도 한쪽에서 그 고3들로부터 인생상담을 구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수능을 못 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라고 위로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답했다.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그 아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이번에 수능을 기대만큼 못봐서 우리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했더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푸욱 푸욱 쉬십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제가 죄인이 된 듯합니다.”

어찌 이 고3 아이와 엄마의 관계뿐이겠는가? 우리는 부모와 자식간에, 사제지간에, 선후배간에, 친구들 사이에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자주 건넨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도 괜찮으려면 두 사람 사이의 사랑뿐 아니라 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교체

덴마크는 그게 가능한 사회다. 유엔 조사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가 된 덴마크의 사람들은 ‘괜찮아’라는 위로가 사회 속에서 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7학년까지는 시험도, 점수도, 등수도 없다. 그 이후에도 성적우수상이 없다. 반장도 뽑지 않는다. 학생 개인에게는 자존감을 심어주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나’로 재단하지 않는다. 지금 못해도, 하고 싶으면 끼워준다. 뭘가를 좋아하고, 잘하게 되기까지 저마다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준다.

게다가 더 부러운 점은 ‘교실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도 통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택시기사


와 식당종업원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나는 덴마크를 4차례 방문해 ‘행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데, 나도 즐겁고 옆 사람들도 즐겁다.’

그런데 행복한 나라 덴마크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150여 년 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국토의 5분의 2를 빼앗겼을 때 온 국민이 절망에 빠졌고, 그때 그룬트비 목사 등이 주도해 교육개혁을 시작했고, 그것이 만들어낸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덴마크처럼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내일은 옵니다. 그 내일은 우리들의 오늘이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내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전국순회강연을 하면서 2만 여 킬로미터를 달리며 전국을 세 바퀴쯤 돌았는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꿈틀꿈틀대는 시민들을 만나 지치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턴가 그들을 꿈틀리 주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권교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사회교체는 오늘 나로부터 매일 계속된다. 정권교체의 날엔 당선된 대통령이 월계관을 쓰지만 사회교체의 날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꿈틀대는 시민 모두가 승자다. 불안한 사회, 살벌한 사회, 피곤한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교체하는 작업은 인사말의 교체로 시작된다. 사람을 만나면 밥별이는 되냐고 묻기 전에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묻자. 당신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지금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냐고 묻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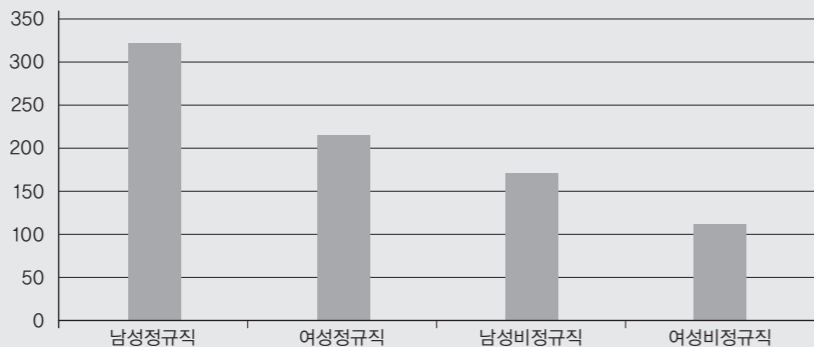
여성 노동: 신화와 현실

글 |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5년 한국사회에는 여성을 둘러싼 수많은 신화와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이미’ 획득했거나 심지어 남성을 능가한다고 믿고 있다. 권익증진, 법적·제도적 정비, 이를 통한 보호와 동등한 교육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국 여성의 권한은 ‘충분히’ 높다고 평가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한 ‘심정적 믿음,’ 혹은 ‘신화’에 근거해 혐오의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생물학적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을 호출하기도 한다. 이 같은 ‘역풍의 시대’에 이 글은 여성주의 활동가이자 연구자로서 여성노동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여성들은 진정 평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그 결과 여성들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가?

우선,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높은 경제참여율로 인한 저출산”라는 담론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10여 년 간 50%에 그치고 있다. 2006년 50.3%의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49.2%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소폭



〈그림1〉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자료 : 통계청, 2013)

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2013년 현재, 여전히 50.2%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수많은 여성들이 고용 불확실성과 종사상의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2014년 3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7,968천 명 중 비정규직은 4,428명(55.6%)로 비정규직이 훨씬 많으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중 여성비율은 53.8%에 달한다. 시간당 임금의 상대 수준을 보면, 남성 정규직이 100이라면 2013년 통계청 자료 기준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약 1/3 수준인 35.4%에 불과하며,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53.2%에 불과하다(그림 1). 특히 여성은 40대가 넘어서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확연히 증가하여 고령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

셋째,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질’의 일자리는 높은 성별 임금격차로 귀결된다. 성별직종분리,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오는 경력단절, 나이차별(연령)에 따른 성차별적 임금구조 등이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상과 같은 현실은 여성들 간 계층문제가 결국 성차별문제로 긴밀히 연관되며, 약탈적 자본주의가 잔존하는 가부장제를 토대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육 수준과 대학진학률 면에서만 보면 성평등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 대졸자에 비해 현격히 낮은 현실과,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취업률과 일자리의 질을 볼 때 성평등한 한국사회는 ‘아직’ 먼 이야기다.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의 불일치성은 사적 가부장제의 침식과 달리 공적 가부장의 견고함을 드러낸다.

연관하여, 2013년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여성이 일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판명되었다. 한국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1.9%로 세계 45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

째이며, 10대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은 여성의 빈곤율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저임금,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 이로 인한 연금의 부재와 부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생애과정 등은 여성 빈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성의 낮은 경제적 참여, 높은 성별임금격차, 질 낮은 일자리, 이로 인한 빈곤화는 남성이 경제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게 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가정을 떠나지 못하는 것,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어도 견뎌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여성의 낮은 경제적 권한과 연관된다.

더 크게는 남성이 통제하고 있는 경찰, 사법, 입법, 정치적 권한이 모두 자본과 연결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들은 모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집중시키고,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성중심의 ‘권력의 카르텔’에서 배제된다. 이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경제적 통제권의 강화는 여성의 낮은 사회·문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성취된 성평등’이라는 신화는 현실이 아닌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특히 자본주의가 가부장제를 침윤시키면서 이에 대응하는 개별적 전략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위협 요인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적 요소들에 여성들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불평등은 악화되기는커녕 재생산되고 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차별은 공적영역에서 여전히 강고한 한국 가부장제의 성차별주의와 분리해서 사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젠더혁명이 착근되기 전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휩쓸린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와의 협력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가부장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 볼 때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수명끝난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라!”

글 | 정서연 (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2014년도 6·4 지방선거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폐쇄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지난 2007년 6월 ‘10년 계속운전’을 허가받고 2017년 6월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1호기와,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다해 계속운전 신청을 하고 현재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30년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가 있으며, 2023년 이후엔 국내 대부분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는 계속 결렬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도 ‘월성 1호기 설계 수명 연장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연기되어 2월 26일 회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그동안 위원들이 제기한 지적 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안전 대책을 설명했으나 안전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등이 월성 1호기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된 현행 안전기준인 ‘R-7(캐나다 최신 기술기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증단은 R-7을 적용하지 않아도 월성1호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월성 1호기는 지난 30년간 가동되면서 총 52회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 정지된 바 있는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이고, 사고 직전 10년간 수명을 연장한 후쿠시마 원전을 생각하면 폐쇄가 마땅하다. 또한 월성 1호기는 국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캐나다형 중수로 유형으로, 이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이미 3기가 폐로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6기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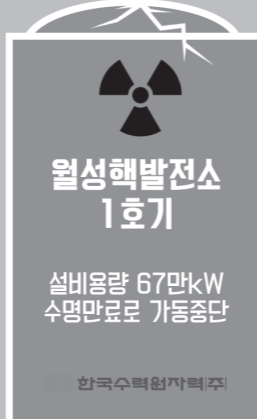
만약 다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된다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하게 되고, 2023년 이후 대부분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에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도 문제인데 원자력산업계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말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날 경우 경제적 피해는 362조원에 이른다.

핵발전소 특히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YWCA의 목적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이다. 이것이 한국 YWCA가 탈핵운동에 나서는 이유이다. 

월성1호기를 가동 연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미지 제공(출처) : 환경운동연합



월성핵발전소 1호기

설비용량 67만kW
수명만료로 가동중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1호기 약력



1977 공사 시작
1982 원자로 최초 가동
2009 수명연장 신청(한수원)
2012 30년 설계수명 만료, 가동중단

특징

사용연료 천연 우라늄 → 핵폐기물 다량 발생
냉각재 중수 → 방사성 삼중수소(트리튬) 유출
유형 캐나다형 중수로 → 국제 안전기준 미달







노후원전의 대형 참사, 100만 생명이 위협하다!

	109만 명 월성원전 방사능 비상사고 대책구역 30킬로미터 내 거주인구		362조 원 월성원전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경제적 피해
	70만 명 월성원전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장기 암 사망자수(*급성사망 2만 명)		41만 원 시민 1명당 원전운영사로부터 받을 배상액(원자력사업자 책임제한)


자료=한국 월성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보고서, 환경운동연합, 2012



‘정상’ 가동 중일 때도 독성 방사능을 내뿜는다!

	30배 중수로인 월성1호기가 경수리에 비해 더 방출시키는 방사능 삼중수소의 양		10배 어른에 비해 방사능 피폭에 취약한 태아가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31.4 벵크렐(Bq)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 1리터당 검출된 방사능 삼중수소의 최고 농도		5배 중수로인 월성원전이 경수리에 비해 더 배출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양

자료=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원전주변 주민 인체의 삼중수소 분석, 2011
자료=사용후핵연료공명하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특성과 관리 개요,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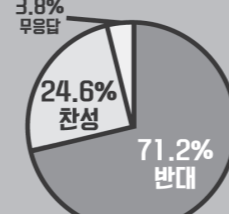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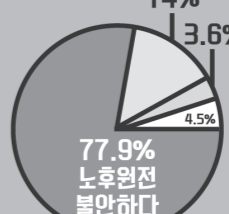


23년

세계 폐쇄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

지난 60년간 세계 원전 가동 역사상 폐쇄된 143개의 원전 상당수는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애초 설계수명을 다 채우지 못했다

‘노후원전 불안하다’ 주민들이 수명연장 반대!

	71.2% 월성1호기 수명연장 찬반을 묻는 질문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을 포함한 경주시민 500명 중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 ('매우 반대'는 의견은 30.8%)		77.9%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은 고장 등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
---	---	---	--

안전성 조사결과 신뢰 못 해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아서
 경제성이 낮아서

자료=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원전1호기 계속운전 관련 설문조사, 2012.11

전국 Y-틴 함께 만드는 탈핵 평화세상

이른 아침부터 버들캠프장에는 Y-틴 회원들의 웃음 소리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라면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아침이면 늘어지게 자고 있을 시간인데 Y-틴 회원들 사이에서는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몇몇 친구들이 무대로 나와 벌칙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글 | 편집실



지난 22일 Y-틴 전국협의회 둘째날 추운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버들캠프장 강당 안은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1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열린 2015년 Y-틴 전국협의회는 'Y-틴이 함께 하는 Y운동, Y-틴이 만드는 평화세상'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Y-틴 회원들이 모여 묻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법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둘째날의 일정은 크게 연합회 한미미 실행위원의 특강, 지역협의회, 조별 중점주제 선정 워크숍, 전국협의회, 그리고 장기자랑인 와이팝스타(Y-Pop Star)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한미미 실행위원은 국제단체인 YWCA를 소개하며 청소년 시기에 Y-틴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비전과 방향을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법을 따라하는 노하우(Know-how)를 알아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Y-틴 친구들을 만나러 온 이유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자 Y-틴 친구들은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 요목조목 대답해 준 한미미 실행위원에게 감사의 박수로 화답했다.


조별 중점주제 워크숍에서는 2015년 Y-틴의 중점 주제를 정하기 위한 조별 토론이 진행됐다. 돌봄, 학교폭력 등 한국Y의 6대 과제를 설명한 키워드들과 다문화, 안전교육 등 Y-틴 회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늘어놓고 Y-틴이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야할 주제들로 두 시간 가까이 토론이 진행됐다.

어떤 조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다문화 친구들 중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불리 다가가지 못해 미안했다. 저소득층 친구들과 다문화 친구들을 위한 교육을 YWCA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적으니 우리(=한국사람)가 보호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다문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한민족 정서가 파괴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사람한테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도 있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Y-틴의 중점 주제였던 탈핵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어느 조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진이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하면 다 잔다. 대구에 있는 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보는 적이 있는데 지하철 사건 이후에 생긴 것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다. 우리는 그 흔한 심폐소생술조차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토론하며 Y의 어른들이 '탈핵'을 중점 주제로 정해서 Y-틴도 계속 탈핵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자 Y-틴 회원들은 "처음에는 어른들이 하나까 저희도 한 건데요. 하면 할수록 알지 못했던 것을 배웠고,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면 지나가던 시민들한테 주목받고 어른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서명해 주니까 진짜 재밌었어요!"라고 한다. 그리고 한 해로 탈핵 운동을 접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Y-틴 회원들의 바람대로 2015년 Y-틴 중점 주제는 '탈핵'으로 정해졌다. '청소년 인권'과 '진로'라는 주제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슬로건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로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결정했다.

올해 Y-틴 중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총 10명의 Y-틴 중앙임원을 선출했다. 전국협의회 회장으로는 순천YWCA 권세은 회원이, 총무로는 안양YWCA 황희선 회원이 당선되었다. 2015년 뜨거운 Y-틴의 탈핵 운동을 위해 지역에서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 

전국협의회장이 되어

글 | Y-틴 전국협의회장 권세은 (순천Y-틴, 순천팔마고 2학년)



"안녕하세요. Y-틴 여러분, 저는 순천Y-틴 권세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를 전국협의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협의회에서 회의를 이끌어 가고, 게임을 진행하는 직전 중앙임원들을 보며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꼼꼼함과 침착함으로 Y-틴을 이끌어가고, 특히 제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2015 Y-틴의 중점운동인 '탈핵'을 주제로 전국의 Y-틴들이 찍은 플래시몹을 영상으로 만들고, Y-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더 많은 사람이 탈핵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늘 배우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임원단 소개

 황희선 (안양Y-틴, 성문고 3)	 김유정 (서울Y-틴, 경기여고 2)	 정민지 (수원Y-틴, 수원여고 3)
 박수정 (충주Y-틴, 한림디자인고 3)	 구분화 (청주Y-틴, 산남고 2)	 김주희 (목포Y-틴, 목포해인여고 2)
 소흥정 (전주Y-틴, 18살)	 최지나 (창원Y-틴, 창원중앙여고 2)	 이세영 (대구Y-틴, 도원고 2)

한국YWCA의 운동을 알리는 우리는 대학생 아나운서

2011년 2월에 개국한 한국YWCA 청년 인터넷 방송국 YWBS는 8기까지 총 40명의 아나운서를 배출하였고, 약 27만 명의 시청자가 다녀갔다. 2014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 8기 아나운서는 매일 코너로 YWCA의 6대 과제를 소개하고, 다양한 Y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별풍선은 북한어린이돕기 기금으로 전환돼 작년 한 해 30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글 | 편집실

김민애 월요일 아나운서 -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YWBS!"

아나운서 준비 기간이 늘어날수록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고 나니 불안한 마음만 더해져 갔다. 정말 운 좋게도 YWBS 아나운서로 활동하게 되었고, 돌이켜보면 20회를 진행하는 동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첫 방송 땀 장기자랑을 시킨다는 것에 긴장이 되어서 집에서 노래연습까지 했었다.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방송 문제가 생기면 많이 당황했는데 장치 결합이 있을 때면 당황한 나를 오히려 청취자들이 진정시켜 주고 해결책을 알려주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아나운서가 되는 일이 YWCA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5기 전주방송에 몸담고 있는 이유경 아나운서가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올해에는 꼭 아나운서가 되어 훗날 YWBS 멘토링 강사로 꼭 초청되고 싶다!

김민지 수요일 아나운서 - "사랑이 제일 낫더라"

YWBS와 함께했던 지난 5개월은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시기인 '청춘'에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남겨질 것 같다. 방송초기에는 방송과 학업을 병행하며 1인 다역을 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은 버거웠다. 하지만 방송을 진행하는 일에 보람과 사명을 느끼게 되면서 최선을 다했다. 또한 YWCA 청년캠프와 가을 음악회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로 참여하고 탈핵 불의날 캠페인 등 다양한 Y 운동과 함께 하며 Y의 정신과 목표를 되새기며 방송할 수 있었다. 함께 한 실무자 분들과 수요일 '사랑이 제일 낫더라'와 함께 해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따뜻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한국YWCA와 함께 한 2014년 YWBS 8기 활동



- ① 7월 15일
제18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민지, 연주, 은진 아나운서가 참석해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활력 있는 캠페인의 장을 만들었죠! 오렌지 머리띠의 힘!"
- ② 8월 13일~14일
2014 YWCA 청년평화캠프
"민지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연주 아나운서가 사회자와 자원봉사자로 함께 Y의 청년운동에 동참했습니다!"
- ③ 10월 14일
제3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음악회
"민지 아나운서가 음악회 사회자로 참석해 명동의 시민들에게 탈핵 서명을 요청하고, 음악회의 품격을 한껏 높였습니다!"
- ④ 12월 18일
김필레리더십캠프
"12월 정신여고 학생들과 함께 한 캠프에서 연주 아나운서가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박은진 금요일 아나운서 - "20살, 용기와 도전"

처음 YWBS에 지원할 때 나는 방송에 대해서도 사회인의 자세, 북한, 통일, 원전 등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내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다. 대학에 올라와서 꿈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나를 보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아나운서라는 내 꿈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이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내게 기회를 준 YWCA에게 감사하다.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을 매일 주제로 소개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배워나갔다. 여성들을 위해, 인권을 위해 힘쓰는 YWCA를 보며 작은 소리들이 모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나에게 용기를 준 YWBS 방송, YWCA에게 감사하며 더 멋지게 나아갈 것이다.

이연주 목요일 아나운서 - "YWCA의 세상을 바꾸는 소식"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첫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혹여 실수하진 않을까 걱정만 앞섰는데, 그간 방송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티라 활동을 끝마치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매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내게 따뜻한 말과 정성 담긴 간식으로 격려 해주신 청취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8기 활동은 끝났지만 감사하게도 YWCA와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UN CSW(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하는 면접 기회를 얻어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여할 Y의 청년 대표로 선발됐기 때문이다. Y를 대표해 UN 회의에 참가한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동시에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무척 설레기도 한다. 무엇보다 기회를 주신 YWCA에 감사드리며, CSW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오겠다.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토대로 기획했다는 국가직무표준능력(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역시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22년 설립초기부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다양한 자기개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YWCA는 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실과 함께 NCS 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글 | 배정미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NCS 제도의 현황을 여성고용과 복지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NCS 제도를 보완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박사는 ‘NCS 체계 내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전제로 여성직업훈련 현황 분석에 따른 NCS 직무개발과 더불어 정책입안 과정에서 여성직업훈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정책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박사는 여성고용이 NCS에 기반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되 취업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직업훈련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직업훈련기관들이 NCS 체계에 통합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지현주 관장은 NCS 관련 업종 가운데 25% 미만이 여성직종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150여 개 여성선호 직종이 현재 NCS의 개발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시장 진입이 NCS의 장시간의 직업훈련 및 소양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인력공단 구자길 원장은 NCS 개발이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도화된 배경을 언급하며 미개발된 영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개발·보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안양YWCA 박동순 사무총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미래의 노동시장변화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함을 언급하는 한편, 정부의 여성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여성들이 많은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자제를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현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산업계의 단체들이 건설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SC(산업별협의체, Sector Council)가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NCS가 도입되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수많은 단체급식시설에서 필요한 집단급식조리사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대중 길노무법인 대표는 40대 저학력 여성들을 위한 직종에 대해 NCS 개발이 필요하며, 돌봄직종 특히 가사서비스에 대한 NCS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고용노동부 김효순 과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NCS 개발과정을 소개하며 결과적으로 NCS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김홍섭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개발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부처인 만큼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NCS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김민아 과장은 여성가족부가 NCS를 접한 시기가 불과 몇 년되지 않았고 제도설계 초기부터

여성가족부가 배제되었음을 밝혔다. NCS 관련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여성들이 NCS 훈련에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할 때, 여성고용관련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와 더불어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새로일하기센터와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기관의 위기? VS 기회!!!

이번 토론회는 두 가지 필요성 때문에 개최했다.

첫째, NCS 도입 과정에 여성고용과 복지 관점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NCS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 2015년 1월 현재까지 개발된 직종 대부분이 제조업, 건설업 등 남성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격차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했을 때,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비공식 노동, 단순노동 등의 분야에 대한 NCS 제도 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되었다. 둘째 현실적으로 정부가 고용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NCS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성별수혜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조치사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설립초기부터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제활동 지원사업을 해 온 한국YWCA로서는 본부중심의 돌봄서비스 직업 훈련은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 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직업훈련 현장 모두 전환시점을 맞고 있다. YWCA의 직업훈련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영리 목적의 여타 시설과 차별화될 때 구체적인 중장기 비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퀴바디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는 기독교인이 영화, 음악, 공연, 전시 등 대중문화를 성서적인 관점으로 보는 칼럼이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영화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글 | 최대광 (정동제일교회 부목사)



퀴바디스(QUO VADIS, 2014)
다큐멘터리 | 한국 | 105분 |
2014. 12. 10 개봉
감독 : 김재환
출연 : 이종윤, 안석환, 남명렬 등

욕망이란 무엇일까? 대부분 욕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자유를 향한 욕망', '평화를 위한 욕망'과 같이 이타적 욕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독교는 나에게서 벗어나 남을 위해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하나됨을 가르치는 종교다. 이타적 종교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하셨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움직이는 마음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대단히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이라고 우기는 집단이 있다. 바로 한국교회다. 열매를 보면 마음을 알게 되어 있다. 영화 '퀴바디스'는 비 오는 화면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클로즈업 한다. 축복의 햇빛이 아닌, 음울한 비로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하면서, 영화는 옥한흠 목사의 아들 옥성호 씨의 육성을 전달한다. "한국의 대형교회는 목회자의 욕망과 교인들의 무지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욕망과 무지의 근저에 깔린 공통분모는 '이기심'이다.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 반대인 것이다. 교회는 스스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다면 사람들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애절하게 외쳐도,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포장하고 교회건축과 세습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알아챈 것이다.

영화는 미국의 코믹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를 패러디한 마이클

모어(이종윤)를 해설자로 등장시키며, 무거운 주제들을 코믹하게 엮어간다. 영화는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이기심이 '욕망과 무지'를 타고 진행되는 방식을 4가지 꼭지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첫째로는 권력자의 편에 선 교회이고, 둘째로 목회자의 성(性)적 부도덕, 셋째로 목사직 세습, 넷째로는 은행대출과 교회건축이다.

첫째로, 2010년 6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6.25 전쟁 60년 평화기도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기도회에 특별연사로 초청받은 사람은 미국 전 대통령 조지 부시였다. 대량살상 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범하여 14만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그가 한국교회의 평화 집회에 초청됐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영화는 말한다. 도대체 왜 부시를 초청했을까? 영화는 목사들이 권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한다. 자신을 높게 보이려는 이기적 욕망을 평화로 포장한 것이다.


둘째로 영화는 자신의 '성육'을 채우기 위해 교인을 도구로 삼은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 전병욱을 보여준다. 그는 새 임지인 흥대새교회에서 '역경을 거친 나 같은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뽐뽐하게 설교한다. 완벽한 사람보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더 정감이 간다고 할 때,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가서 잘못했다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 사죄를 회피하고 자신들을 합리화 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밀양(2007)'에서 아들을 잃은 신애(전도연)가 감옥에 있는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하자, "이미 나는 다 용서 받았다"고 말하는 뻔뻔스러움을 보고 신애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연상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를 사임할 때, 18억의 전별금을 받았다고 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셋째로 영화는 '대형 교회의 목사직 세습'을 비춘다. 김국도 목사는 세습금지법이 감리교회에서 통과되자, 다른 목사를 한 달 동안 담임목사를 '시키고', 한 달 후, 아들을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기상천외한 변칙세습을 감행했다. 그는 "삼성도 아버지 이진희가 아들 이재용한테 주는데, 왜 난 안되지?" 하면서 큰소리친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무리한 대출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를 비춘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끝, 곧 거대한 공룡의 멸종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끝 부분에 옥한흠 목사가 목회자의 욕망과 부도덕함을 비판하는 회개의 설교를 할 때, 예수께서 눈물로 설교를 할 때, 교회의 좌석에는 아무도 없다. 영화의 제목인 '퀴바디스'는 폴란드 출신의 소설가 헨릭 키엔키에비치의 소설을 차용한 것이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예수는 점점 작아져 갔다. 이기적인 욕망은 점점 더 커지고, 이타적 욕망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이기적 욕망의 장소에 소설 '퀴바디스'처럼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시지만, 이 모습을 보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 영화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 영화는 교회 안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먼저 봐야 할 내용이다. 또한 대형교회를 끌어안아가는 이기적 욕망을 뛰어넘을 영적 수행과 대형교회의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교회의 방식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희망이 거의 사라졌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완전히 사라졌다면, 이런 영화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2015년 세계대회를 준비하며 세계YWCA와 120여 개 회원국YWCA 운동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2015년 제28회 YWCA세계대회 소개와 전 세계 YWCA에 한국YWCA가 제안하고 함께 펼치고자 하는 탈핵과 여성 운동, 그 안에서의 한국YWCA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글 | 최지혜 (연합회 국제팀 팀장)

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 towards 2035

2015년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베이징 선언문과 행동강령, 1995)가 20주년 이 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 목표 시점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유엔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 상황과 Post-2015 개발 의제를 선정하고, 2035년까지의 새로운 국제개발 목표 합의가 가장 큰 화두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 세계의 여성단체와 각 국가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녀평등권 실현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여성 발전의 청사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 역량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015년, 전 세계 YWCA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2015년은 세계YWCA에서도 중요한 해이다. 제28회 YWCA 세계대회(the 28th World YWCA Council)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4년마다 개최되는 YWCA 세계대회에는 세계 108개 회원국의 550여 명의



세계Y 홈페이지 메인에 한국Y의 탈핵운동이 소개되었다 (2015. 2. 6)

정대표들을 포함하여 1,000여 명의 대표들이 모여 세계YWCA 회장, 회계와 이사를 선출하고, 헌장개정, 결의문 통과, 회원국의 지위 변경, 4년보고, 2015-2019 운동중점과 예산 승인 등의 주요 사안들을 처리한다.

2035년을 향해, YWCA 운동의 비전을 그린다

전 세계가 지금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새로운 운동 방향과 비전을 세우는 해인 2015년! YWCA 세계대회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베이징 선언문과 행동강령 그리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토대로 YWCA 운동과 사업을 점검하고, Post-2015의 의제개발과 2016~2035년의 새로운 국제개발 목표를 합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2015년 YWCA 세계대회는 주제를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towards 2035)'으로 잡고, 2035년까지의 세계YWCA와 회원국YWCA의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그렇기에 2015년 YWCA 세계대회는 지금까지의 YWCA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세계여성과 시민운동의 흐름 속에서 세계YWCA의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이다. 한국YWCA 대표들의 2015 YWCA 세계대회 참가는 한국YWCA의 목소리와 운동의 방향이 국제개발 목표와 세계YWCA 운동의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탈핵과 여성!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YWCA의 담대한 지도력들이 탈핵 세상, 생명세상을 꿈꾸다


한국YWCA는 2015년 YWCA 세계대회에 일본 YWCA와 공동으로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반대하는 한·일YWCA 공동결의문'을 제출하고 핵발전소와 핵무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진과 국제협력운동을 제안한다. 이러한 한국YWCA의 행동은 전 세계의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현황을 알리고, 핵 문제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가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범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5년 YWCA 세계대회를 통해 한국YWCA의 탈핵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죽음의 불을 끄고 생명의 불을 켜기 위한 운동으로 확대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을 직접 겪은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결의문인 만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YWCA 뿐만이 아니라 92개의 핵발전소가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핵의 지뢰밭이라 일컬어지는 동아시아의 핵 밀집 지역들의 인접국을 포함한 전 세계YWCA들과 연대를 통해 죽음의 에너지인 핵을 끄고 재생에너지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핵에너지와 핵무기는 재생산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성적권리와 재생산권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YWCA는 생명세상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핵무기와 핵에너지(발전소) 정책을 폐지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계YWCA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한국YWCA의 탈핵 운동을 알리고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YWCA 세계대회는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세계 120여개국의 300만 YWCA 회원들이 함께 연대하여 탈핵 세상, 생명세상을 꿈꾸며 현장에서 실천할 방안들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김영정, 김현자 명예연합위원에게 듣는 세계YWCA 이야기

올해는 전 세계 120여개 나라의 YWCA가 한 자리에 모이는 제28회 세계대회가 열린다. 한국YWCA 김영정, 김현자 명예연합위원은 한국Y의 선배이자 1970년대에 세계Y 실행위원으로 역할하며 Y의 국제적인 길을 개척했다. 현 세계YWCA 이사를 맡고 있는 한국YWCA 원영희 실행위원이 2월 6일 연합회 회장실에서 두 분을 모셔 대담을 진행했다.

글 | 편집실

김현자 (1928년생)
1953~1997 연합회 실무자, 실행위원, 위원장, 부회장
1971~1979 세계YWCA 실행위원
1981~1988 제11대, 제12대 국회의원
1991~2000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총재, 총재

김영정 (1929년생)
1954~198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1979~1983 세계YWCA 실행위원
1975/79/83/91 세계YWCA 대회 한국YWCA대표
1992~1996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원영희: 두 분께서 YWCA에서 활동을 시작하신지 66년, 67년이 되어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국Y의 100주년을 7년 남겨놓은 올해를 맞이하는 두 분의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현자: 박에스터 선생님이 “한번 Y에 발을 들여놓으면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Y에는 다른데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김영정: 그것이 Y의 특색이다. 회원의 나이, 직업, 활동 범위가 아주 다양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Y에 들어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떠날 수가 없게 된다. 나이가 많으면 안 받아주는 단체도 많은데 Y는 가능하다. 그래서 Y 안에서는 어린이와 젊은이도, 어른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결국 YWCA는 사람이고, 사람 중심이다.

원영희: 한국Y의 후배들에게 두 분께서 세계Y 실행위원으로 일하셨던 경험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김할란 선생과 한국대표 10명이 1947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Y 협의회에

참석하신 이후로 1971년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린 세계Y 협의회에서 김현자 선생님이 세계Y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시고 1979년까지 활동하셨지요.

김현자: 박에스터 선생은 한국Y에서 세계Y로 가서 일할 사람을 만들자는 생각을 명확히 갖고 계셨던 분이다. 세계Y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익히게 하려고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나를 보내셨다. 박에스터 선생의 그런 의식적인 노력 때문에 내가 세계Y 실행위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

세계대회에 가서 여러 문물을 접하고 그 곳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안목이 트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해서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김영정: 김현자 선생님이 세계Y 실행위원을 두 번이나 한 것이 나는 정말 좋다. 내가 두 번째에서 떨어진 것이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을 할 당시 정부에서 밖에 내보내 주지 않았다. 그 때가 83년인데 여자가 밖에 나가면 큰 죄가 되고 그랬다. 국가 공무원들이 여성단체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다.

얼마 전에 유엔한국협회 회의에 갔더니 요즘은 여성들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서로 진출하려고 한다더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한국Y에서도 세계Y로 보낼 인재를 계속 키워야 한다.

원영희: 세계Y에 온 각국의 Y지도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인물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정: 그 때는 세계Y 대회를 끝나고 여러 나라의 YWCA들을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1979년 아테네 세계대회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들이 팔레스타인YWCA로 갔다. 팔레스타인Y 총무였던 도리스 살라(Doris Salah)가 우리를 굉장한 후원자로 생각하며 맞이해주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무실 안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에게도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다. 그 곳에 며칠 머무르면서 도리스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생활도 보여주었고, 겹세마네와 같은 성지들도 구경시켜 주었다. 그 곳에 똑똑한 여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국에서 온 우리를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환영을 많이 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원영희: 두 분께서 보실 때 한국Y가 백주년을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만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정: 핵심적인 것을 붙잡아서 여러 해를 지속하고 회원Y와 연합회가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적절히 평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연합회 건물에 들어서면 Y운동 사진들을 전시해놓은 것처럼, 우리 운동의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사실 한국Y가 걸어온 발자취 자체가 상당히 과감하다. 주제를 하나 잡아 실천하고, 꾸준히 해 오는 것이다. 가끔 월간<한국YWCA>를 보면 회원Y 사무총장이나 간사들이 쓰는 글이 상당히 감동적일 때가 많아서 만나보고 싶기도 했다. 한국Y가 가진 이런 장점들을 잘 간직해야 한다.

원영희: 한국Y가 부산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고리 원전에 가서 십자가 행진과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이 날 많은 감동을 받아서 세계Y에 알렸더니 각국의 이사들이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주더군요. 한국Y의 탈핵운동도 국제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정: 세계Y에서 활동할 Y가 키울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Y의 운동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 Y가 그런 안목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제는 많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Y에서 훈련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김현자: 우리가 늘 원조받고 그랬는데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다양한 세계의 문제들에 우리도 먼저 관심을 갖고 세계대회 뿐 아니라 국제회의에 다녀오면 꼭 자리를 마련해서 외부로까지는 아니어도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고 배웠는지를 기록하고, 또 서로 발표하며 토론하며 나누고 해야 한다. 그런 기록들과 나눔을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연합회 실무자들이 두 분의 명예연합위원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왼쪽 김영정 위원, 오른쪽 김현자 위원)

생명의 바람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시작되길

글 | 양희옥 (전주YWCA 부장)

연합회에서 주최한 2014 YWCA 모금워크숍은 전주YWCA 이영희 회장님, 최명희 부회장님, 정지나 부회장님, 신수미 증경회장님, 이명자 사무총장님, 양희옥 부장 총 6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열정으로 안고 '모금운동'의 방향을 한곳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작이었다. 2014년 6월과 7월에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된 모금워크숍을 참석하며 전주Y의 모금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들을 나누고, 그 안에 또 다른 고민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전주Y만의 모금워크숍 진행과 성과

모금워크숍 이후 전주Y에서는 모금운동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체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지난 8월 18일 전주Y 전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모금의 의미와 전략적 모금실행의 중요성, 모금의 주요 요소와 모금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여 기부자 분석, 모금목표 설정 등의 과정을 체계화 해나갔다.

이후 결과로 도네이션(Donation) 박스를 제작하였다. 모금전략아이템은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탈핵운동, 평화운동으로 4가지를 선택하였다. 도네이션 박스 제작 이후에 2014년 9월 25일 '전북여성젠더(Gender)축제'가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열렸다. 전주Y를 비롯한 전국성평등교육협의회 소속 23개 기관대표와 도내 4개 대학 여대생 등 전북지역 여성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별로 주요활동을 알리고 여성정책의 의제를 제안하는 장이었다.

전북여성들의 상생과 화합, 소통을 위한 이 자리에서 전주Y에서는 탈핵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고 핵발전소 반대 캠페인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탈핵운동을 위한 도네이션 박스를 설치해 서명과 작은 정성으로



도네이션 박스를 바라보는 어린이들

탈핵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물결이 이어졌다.

2014년 10월 6일에는 '사단법인 도움과 나눔'의 강사를 초빙하여 전주Y 자원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워크숍을 진행하고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라는 주제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사님들과 위원님들이 전주Y의 모금운동과 회원증모운동이 생명의 바람 되어 한 사람, 한 기부자의 참여가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했다.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예우 프로그램의 중요성

모금워크숍을 통해 더 크게 변화를 시도해 본 부분이 있다면, YWCA를 찾고 함께하는 모두를 잠재기부자, 신규기부자로 생각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었다. 기부자에게 맞춤형 예우와 더불어 개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모금워크숍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자와 회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했고 이들 모두가 전주Y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와 감사인사를 지속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4년을 마무리 하면서 12월 17일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 해동안 함께 한 회원 150여 명을 초청해 조화로운 여성 지도력을 위한 '문화한 마당'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고규홍 교수(나무칼럼리스트)를 모시고 '나무에서 찾는 우리들의 조화·화합 이야기'란 주제로 공개특강이 있었고, 2부에서는 기관별로 준비한 공연을, 3부는 나눔한마당으로 진행되어 지역사회에서 여성지도력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2014년 12월 8일 이사·직원 정책(프로그램)협의회를 통해 기부 모금운동에 따른 그룹별 논의를 하였으며, 2015년도 중점방향으로 고액기부자 발굴, 기부단체 확보를 위한 월례 아침 기도회를 지역사회 교회와



전주YWCA실무자 모금워크숍



탈핵캠페인 모금운동

연계하여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부자관리를 위한 회원모임 활성화,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 회비증액, 운동중점의 프로그램 개설, 재능기부 후원자를 통한 재정 확보, 재능 기부 및 지도력 프로그램 및 지도력 개발의 필요성을 나눴으며 전문이사 발굴, 위원회의 활성화, 재능기부 가능한 강사 발굴, 대학Y 활성화를 통한 지도력 확보(젊은 지도력 양성)에 따른 세부계획을 하였다.

전주YWCA는 모금워크숍에 참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 이후에도 성숙된 변화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의 새날에도 전주YWCA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로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위한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다.

거제YWCA의 작은 실천 나눔

글 | 김수연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간사)



지난 2014년 1월, 거제Y 정기총회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한 박정곤 목사님(고현교회 담임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 설교는 2014년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함께할 한국YWCA운동에 대해 고민하던 거제Y에 ‘나눔으로 평화 운동’이라는 열쇠를 쥐어주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제Y는 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거제Y 회장, 사무총장과 실무자는 직접 발로 뛰며 북한어린이돕기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거제Y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데는 이유가 있다. 북한 어린이들의 또래인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이 운동을 알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거제Y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린이집 아이들은 ‘북한’이라는 곳에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으며, 이 친구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배가 고프는데 마음껏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밥 먹을 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을 거예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아이들이 목청껏 소리를 높이며 다짐하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났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모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종이 우유팩을 나눠주었다. 우유팩에는 일일이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주었고 아이들은 북한의 친구들을 위해 동전을 채워 넣을 설렘으로 눈망울이 반짝였다. 얼마 후, 거제Y 실무자들은 각 가정으로부터 모인 종이 우유팩을 수거하기 위해 다시 어린이집을 찾았다.

종이 우유팩 속에는 동전들 사이로 북한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았을 아이들의 예쁜 마음씨가 채워져 있었다. 거제Y는 우유팩에 담긴 동전을 전달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이 날을 기념했으며,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어린이돕기 감사장을 전달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아이들의 동전 모으기는 거제Y의 북한어린이돕기 운동, 더 나아가 ‘나눔으로 평화’ 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거제Y의 많은 동역자들이 운동에 대한 제안을 주시기도 했다. 우유팩이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우유팩을 제작하라는 제안을 해주셨다. 그럴 때마다 거제Y는 종이 우유팩은 비교적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버려진 후에 재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나눔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설명드린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이 밝았다. 거제Y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평화 운동을 통해 거제가 희망과 소망, 사랑, 열정이 가득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현교회(박정곤 담임목사), 신현교회(서용진 담임목사), 옥수교회(윤여삼 담임목사), 아주초등학교(이호을 교장),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직이수학생, 거제Y어린이집, 종곡어린이집, 초록돌어린이집, 누리봄어린이집, 국민건강보험공단거제지사, 장승포농협아주지점, 거제애광학교(김성중 교감), 기업은행거제지점, 김경화이사, 김경옥이사, 민경숙이사, 민주옥이사, 김기쁨 회원 등의 관심과 정성이 담긴 5,732,590원을 모아 연합회에 전달하였다.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이모저모〉

북한어린이돕기 기념일 후원

한국YWCA연합회는 100주년을 준비하며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 중이다. 2014년 여름부터 디지털 자료실 구축 작업에 함께했던 이지영 자원봉사자는 매일같이 연합회 사무실로 발길을 옮기면서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을 알게 되었다. 영양결핍상태인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친언니(이가영)와 친구(박인경)와 함께 커져갔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숨겨놓았던 재능을 살려서 크리스마스카드를 손수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판매수익금의 100%를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후원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은 큰 감동으로 찾아왔다. 작은 불씨가 커져나가 2015년 희망과 평화의 해로 확대되길 소망하며 카드 판매 수익금인 총 235,000원을 연합회에 전달하였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2014년 12월 1일 ~ 2015년 1월 31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2014. 12. 1 ~ 1.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광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민혜, 권진, 김가혜, 김건세, 김경숙, 김경희,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진웅,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영수,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세원,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안은정, 안정희, 안혜진,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석, 이주영, 이지은, 이지은, 이천진, 이항재, 이항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미, 임진영, 임향자,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운우, 전정미, 전혜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순, 정용, 조복진, 조성애, 조영미, 조은선, 조은영, 조은희, 주라현,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우림,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송이,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수진, 홍현정, 황정아, 황홍백 (총 128명)	3,657,000
개인 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 등)	구정혜, 권오덕, 김기동, 김미, 김행영, 김형, 박인경, 방원철, 손태수, 심성민, 심영숙, 이가영, 이지영, 이희남, 정사랑, 조혜년, 주솔, 최혜실	3,227,260
협력교회	군산성결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약전평강교회, 열린문교회	378,34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신우회, 기업은행 거제지점, 외환은행 명동지점, 마포구청 신우회	198,790
회원YWCA	강릉Y, 거제Y, 고양Y, 광양Y, 광주Y, 남양주Y, 남원Y, 논산Y, 대구Y, 대전Y, 동해Y, 마산Y, 목포Y, 부산Y, 부천Y, 서귀포Y, 사천Y, 서울Y, 세종Y, 속초Y, 수원Y, 순천Y, 안동Y, 안양Y, 안산Y, 여수Y, 인천Y, 익산Y, 의정부Y, 전주Y, 제주Y, 제천Y, 진주Y, 진해Y, 창원Y, 천안Y, 청주Y, 춘천Y, 통영Y, 포항Y, 하남Y	25,597,611
부속시설	청주Y어린이집, 수원Y어린이집, 목포Y어린이집, 원주Y어린이집, 부산강서어린이집, 부산Y어린이집, 성남Y어린이집, 은학의집, 청주서부어린이집	4,117,210
교육 및 모금	월남스키부대 당일 공연 모금, 김필레더십캠프, 8기 YWBS 아나운서 모금액	281,740
온라인모금	해피빈 모금액	9,400
합계		37,467,351



2월 월례아침기도회 2015 신입회장연수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연합회 소식

2월 월례아침기도회

2월 2일(월)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2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열렸다. 한신대학교 신학과교수 이영미 목사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평화세상'(이사야 55:1~8, 요한복음 7:37~38)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의 생수가 넘쳐나는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께서 평화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생수가 흘러넘쳐 이 죽음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또한 모든 10만 YWCA회원들의 삶이 평화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했다.

2015 신입회장연수

2월 3일(화)부터 4일(목)까지 신입회장연수가 진행됐다. 22개 회원Y(광명, 광양, 광주, 김해, 논산, 동해, 마산, 목포, 부천, 서울, 순천, 안동, 안양, 원주, 의정부, 인천, 제주, 제천, 춘천, 충주, 파주, 포항) 신입회장이 참석했다. 사감과 나눔을 시작으로, Y목적과 운동의 이해, Y회장의 사명·자세·역할이해, 영성으로 하나 되는 시간, Y회장 리더십 모색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특별히 교육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Y 중경회장들과 함께 회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운영했다.

2015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 이틀간 부산 아르피나 유

스호스텔에서 한국YWCA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52개 지역 회원YWCA 대표들과 연합회 실행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한국YWCA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한국YWCA 2015년 과제로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탈핵 에너지정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대처, 통일 준비 평화교육 및 대북지원 통로 구축, 청소년 대안교육실천과 청소년 운동, 성인지 정책 정착, 여성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돌봄노동 종사자 법적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탈핵 불(火)의 날 캠페인'이 2월 10일로 제47차를 맞이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들이 열띤 참여를 하고 있다. 특히 1월 27일 제45차 캠페인에는 청소년 캠페이너들 21명과 2014년 Y-틴 전국협의회 임원 3명이 참가해 젊은 Y의 힘을 보여주었다. 제44차와 제45차 캠페인에 연속 참가한 성민욱(동방중학교 2학년) 인천 Y-틴 회원은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면 안 받는데 이제 받아야겠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서명을 해주시고 전단지도 받아주시는 아주 감동적인 분들도 있어서 놀랐다. 이렇게 위촉장을 받았으니 나중에 또 오겠다"고 소감을 나눴다. 2015년에도 탈핵 캠페인은

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와 함께 진행된다.

2014 김필레리더십캠프

김필레션생명사업회가 주최하고 정신여중·고등학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2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YWCA 버들캠핑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 2박 3일 일정의 2014 김필레 리더십 캠프가 열렸다. 서울YWCA, 연동교회, 여전도회관을 현장견학하고, 한국YWCA와 광주YWCA의 창설자인 김필레션생의 일생을 통해 기독교 정신과 여성 리더십을 배웠다. 마지막 날에는 각 조별로 연구과제를 발표하면서 참가자들은 첫날 '나'를 만나, '오늘의 김필레'를 조명하고 '또다른 김필레와 함께'하며 나의 꿈과 실천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할지를 고민하며 새롭게 다짐을 했다.

2014 씽크머니 우수프로그램 시상식

지난 12월 1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2014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9번째로 진행되는 시상식에서는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회원YWCA와 강사,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활동한 협력학교, 지역아동센터와 동아리를 선정했다. 우수회원YWCA로는 김해YWCA가, 우수협력학교는 강서고등학교, 선부초등학교와 안동YMCA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됐다. 그리고 우수YWCA강사에는 대구YWCA의 박윤정 강사가, 우수동아리에는 인천YWCA의 대학생 씽크머니 팀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씽크머니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를 운영해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산간·도서지역 청소년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모금전략수립워크숍 후속(follow-up) 모임

지난 12월 19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2014년 진행된 모금전략수립워크숍 후속 모임이 개최됐다. 6개 회원Y(대전, 부산, 순천, 서울, 전주, 충주Y) 이사, 실무자 16명과 도움과 나눔 실무자 4명, 연합회 이명혜 부회장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회원Y 2014년 활동보고와 2015년 계획과 활동 제안을 토의했다.

성인지정책 정착을 위한 토론회

성인지 제도 정착을 YWCA의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 경기지역 회원YWCA를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의 성과와 발전' 토론회가 지난 12월 22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유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는 여성 시민단체의 요구를 가지고 공무원, 전문가 등의 삼각연대집단들이 참여해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젠더거버넌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선미 하랑성평등연구소장,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윤정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주혁 서울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5 YWCA 신년예배 및 하례식

1월 8일(목) 오전 11시에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및 실행위원, 위원 40명, 회원Y 이사 및 실무자 10명, 연합회 실무자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와 하례식이 열렸다. 방원철 목사(성광감리교회)가 '너도 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2014 씽크머니 우수프로그램 시상식 성인지정책 정착을 위한 토론회 2015 YWCA 신년예배 및 하례식



YWCA 탈핵운동정책센터 준비 연구모임 | 2015년 Y-틴 전국협의회 |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정기총회

YWCA 탈핵운동센터 준비 연구모임

1차 연구모임은 1월 19일(월) 오전 11시 '독일, 오스트리아 탈핵에너지 전환 현장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서울YWCA 양선희 국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태양광, 수력, 풍력) 시설, 에너지시민협동조합, 도심열병합시설, 환경도시와 에너지를 현장방문 보고를 통해 대안에너지 사용의 가능성과 Y의 역할을 제안했다. 2차 연구모임은 1월 27일(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3차는 2월 10일(화) 연합회 김은경 실행위원의 '프랑스의 녹색정치' 발표로 진행됐다.

제1차 YWCA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워크숍

1월 21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회원YWCA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정책(안)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9명의 회원Y 실무자와 함께 YWCA 직업훈련 및 서비스 제공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했다.

2015년 Y-틴 전국협의회

1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YWCA 버들캠핑장에서 'Y-틴이 함께 하는 Y운동, Y-틴이 만드는 평화세상'이라는 주제로 2015년 Y-틴 전국협의회가 열렸다. Y-틴 회원 대표 90명과, 회원Y 청소년담당 및 연합회 실무자 20명이 참석했다. 2015년 중점주제로 탈핵을 선정해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를 작년에 이어 지속하기로 했고, 중앙임원을 선출해 회장에는 권세은(순천YWCA) 회원이, 총무에는 황희

선(안양YWCA) 회원이 당선됐다. (자세한 내용은 24쪽에)

정책 토론회 'NCS가 돌봄노동시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1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주최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과 돌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가 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사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고용과 복지차원의 통합적 관점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NCS 추진체계 마련과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자세한 내용은 28쪽부터)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정기총회 · 사회적기업활성화 제주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연합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는 2월 9일(월) 정기총회를 갖고 2014년 전국네트워크 및 광역 시도별 네트워크 사업추진 결과보고, 감사보고, 2014년 결산 승인,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1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사회적기업활성화 제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서귀포YWCA 회관에서 열었다. 서귀포Y가 제주네트워크 임시사무국을 맡았으며, 올 5~6월까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 인사 50명 내외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북부

인천YWCA | 박인영 간사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인천YWCA는 1월 27일(화)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인천YWCA 제19대 회장으로 김말숙 회장을 선출하였다. 신임 김말숙 회장은 인천YWCA 부회장을 지냈으며 회장 이·취임식은 2월 24일(화)에 진행된다. 제45회 인천YWCA 정기총회는 회원 160명이 참석해 신임이사 6명을 선출하고 표창과 사업·결산·감사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마쳤다.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제27회 정기총회
강릉YWCA 제27회 정기총회가 1월 15일(목) 개최됐다. 1부 예배에는 강릉Y 지도목사이신 이철 감독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전 10:31~33)'라는 제목으로 내면의 변화와 운유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Y회원이 되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어 2부 고문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엄영희 이사의 명예이사 추대와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동자 전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해YWCA | 김정은 간사

2014~15 정책회의
1월 27일(화) 본 회관 강당에서 이사, 실무자와 동해Y 회원들과 함께 제27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본 총회를 통해 동해Y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회원들을 직접 만나고 회원들과 함께 2014년을 결산하고 2015년을 계획했다. 신임 이사와 임원을 선출하고 2015년도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 되길 다짐하는 아름답고 뜻깊은 자리였다.



원주YWCA | 윤정진 간사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원주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게 된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월 12일(목) 개소식을 했다. 원주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취업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행복한 동반자가 되도록 원주시장을 비롯해 많은 기업체의 대표 및 원주Y의 회장 및 이사, 지역여성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춘천YWCA | 이복희 본부장

제50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취임예배



제50회 정기총회와 신입회장 취임예배가 1월 27일(화)에 열렸다. 이사, 실무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통과시키고, 신입이사 6명 선출과 함께 24대 신입회장 취임예배가 이루어졌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우리아이 급식, 방사능에서 안전한가?' 대중강연회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능물질차단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조례제정운동을 보고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자 1월 28일(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우리아이급식, 방사능에서 안전한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지역주민 150명이 참석한 고양시 최초의 주민발의운동이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향후 조례제정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남양주YWCA | 손애령 사무총장
제19회 정기총회
1월 20일(화)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명의 이사를 새로 인준하였다. 총 7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하여 지난 5년간 봉사해 주신 임임회장과 10년간 근속한 실무자, 성실하게 봉사하신 회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성년의 나이를 맞는 남양주Y는 더욱 Y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과 사업을 기대하고 다짐한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2015년 부천YWCA 돌봄임원워크숍
돌봄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Y는 그동안 5차시로 진행되

었던 돌봄임원교육(깨어나라 협동조합)의 마무리로 1월 16일(금)~17일(토) 1박2일 동안 부천한옥마을로 실무자와 돌봄임원, 최순영 이사와 함께 워크숍을 다녀왔다. 조각퍼즐 맞추기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MBTI검사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생그래프로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서로의 민낯을 공유하며 더욱 터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부천Y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돌봄협동조합을 위해 임원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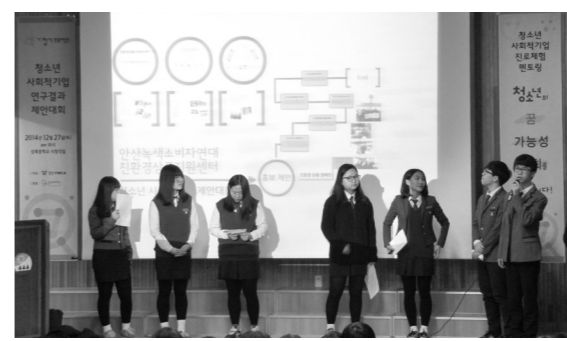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제46회 정기총회
1월 27일(화)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헌장개정 등이 이뤄졌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1명의 신입이사와 7명의 공천위원이 인준되었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청소년 사회적기업 연구결과 제안대회
'청-사-진(청소년 사회적기업 진로체험 멘토링) 사업성과 보고 대회를 지난 12월 27일(토) 상록중학교에서 열었다. 동그라미재단의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10개의 동아리가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체험하고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리더십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1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의정부 지역 청소년 30여 명과 함께 '동계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바로 알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정 중에 의정부Y 정기총회에도 참관하여 주력운동관련 사업과 지도자 선출 등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 공동체 내 NGO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평택YWCA | 정혜근 간사
2014 겨울방학 늘해랑학교 수료식
평택YWCA는 1월 16일(금) 2014 겨울방학 늘해랑학교 수료식을 진행했다. 늘해랑학교는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방학 동안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성,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육지원을 통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늘해랑학교는 1월 5일(월)부터 1월 16일(금)까지 2주간 14명의 특수교육대상 청소년이 참가해 원예치료, 요리 실습,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견학과 눈썰매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부

대전YWCA | 김지찬 간사
제67회 정기총회
1월 28일(수)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제67회 대전YWCA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이사 9명, 공천위원 7명이 인준되었으며, 그동안 대전YWCA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기관과 개인에게 감사패를, 이사와 위원들에게는 봉사상을, 20년, 10년 근속 직원들에게는 근속상을, 또 돌봄클럽 자녀와 청소년 회원에게 대전YWCA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성탄축하와 창립 28주년 예배
지난 12월 23일(화) 창립 28주년을 맞아 제천Y는 자원지도자, 실무자, 회원이 함께 성탄과 창립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시절마다 축하 발표를 하였고 사람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제천Y가 더욱 성장하며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청주YWCA | 김지현 간사

제50회 정기총회

1월 22일(목) 청주Y 강당에서 제50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청주Y의 2015년 목표와 활동계획을 공유하였다. 신입이사, 재선임이사, 공천위원을 세우고, 명예이사와 은퇴이사 추대 및 10년 근속상, 봉사상을 시상했다.



충주YWCA | 김애영 부장

초등학생 대상 즐거운 방학교실 실시

2014년 12월 29일(월)부터 2015년 1월 30일(금)까지 긴 방학동안 저소득가정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즐거운 방학교실을 실시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프로그램에서 Y를 알리고 부진학습을 지도하며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며 공동체 속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천안YWCA | 이연주 대리

제25회 정기총회

제25회 정기총회를 1월 22일(목) 천안YWCA 강당 3층에서 회원과 이사, 임원, 시설장과 실무자들 80여 명이 모여 개최했다. 이날은 22년간 천안YWCA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일하고 함께 해주신 박미선 증경회장을 명예이사로 추대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서부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푸른하늘 국제포럼

1월 19일(월) 광주YWCA와 청년초록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푸른하늘 국제포럼(일본후쿠시마, 대만활동가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일본과 대만의 활동가를 초청하여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주민들

의 삶'(야지마 치히로: 일본 핵사고 피해자이자 환경운동가) 강연과 '대만 환경운동 활동과 에너지정책'(유난푸: 대만 국립 에너지 프로그램 비상임연구원)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원전이 불량부품을 사용하는지, 오래된 원전을 연장하여 운영하지 않는지 등 원전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시민 감시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남원YWCA | 이향재 간사

제23회 정기총회

1월 20일(화) 제23회 남원YWCA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사촌교회 김기욱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2014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또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주제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봉사상을 수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나는 공부방 우쿨렐레의 연주와 Y-틴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다과를 나누며 행복하게 마무리했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제10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단체부문 '대상' 수상

전주YWCA가 지난 12월 18일(목) MBC 상암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제10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은 여성가족부, MBC,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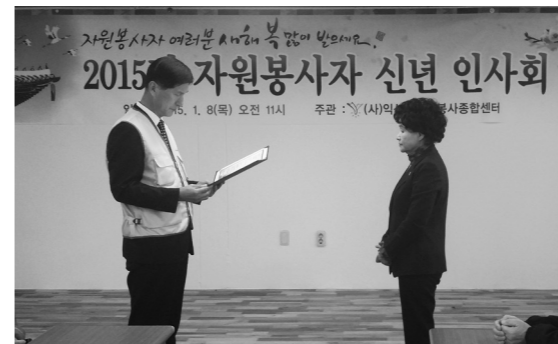


공동주최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사회에 알리기 위한 상이다. 전주Y가 1969년 설립 이후 45년동안 지역의 청소년보호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청소년푸른성장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익산YWCA | 장윤미 간사

월간베스트 시상 수여식

1월 8일(목)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주관하는 '2015 자원봉사자 신년인사회 및 월간베스트 시상수여식'이 진행됐다. 익산YWCA는 자원봉사관리 프로그램과 봉사자 및 봉사활동 최우수 수요처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목포YWCA | 곽수현 부장

제69회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

회원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정기총회를 1월 24일(토) 목포Y 강당에서 개최했다. 2014년 결산, 사업보고와 2015년 예산(안), 사업계획을 심의하며 목포Y의 비전을 공유하고, 재선임이사, 명예이사추대, 공천위원을 선출하였으며, 2014년 회원증모시상을 하였다. 총회가 끝나고 2013년부터 2년간 회장으로 역임한 16대 김애자 회장이 이임하고 이혜경 회장이 1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제65회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

순천YWCA 제65회 정기총회는 1월 27일(화) 공천위원 선출과 신입이사 인준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사회에 개근하신 자원지도자 8명과 회비 최다증여자 최순옥 이사와 회원 최다증여자 김사옥 회장께 표창이 주어졌다. 새롭게 인준받은 김정희, 조혜숙 이사께는 축하 꽃다발과 함께 Y안에서 새로운 지도력으로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임시이사회에서 추대된 강선임 재부회장이 순천YWCA 제21대 회장으로 추대돼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헌신예배를 통하여 참가자들이 Y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다.



여수YWCA | 김상희 팀장

돌봄과 살림 '사랑의 작은 콘서트'

지난 12월 23일(화) 화관 강당에서 살림돌봄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행사로 '사랑의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수고한 살림돌봄 회원들을 격려하고 Y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노리더' 대표인 통기타 가수 장준배 씨를 특별초청해 회원들의 마음에 위로와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YWCA | 장진우 간사

제주YWCA 창립 60주년 기념예배



1월 21일(수) 제주YWCA 3층 강당에서 이사 및 위원, 실무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YWCA 창립 60주년 기념예배'

를 진행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의 공동체'인 제주Y는 1955년 1월 21일 창립해 현재 6개의 부설기관을 운영하며 제주지역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환경, 여성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예배에서는 제주Y 연혁보고 및 영상상영, 기념 떡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2015년 제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대특강 1월 22일(목) 서귀포Y 회관에서 '제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평등 마을 조성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여성친화도시의 사례와 그 의미를 짚어보며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로 더욱 성장하는데 시민들의 역할을 보탬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특강에 이어 도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캠페인을 실시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성평등 시설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동부

대구YWCA | 김세형 차장

제1회 우.행.시 스토리텔링 사진공모전 시상식 제1회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스토리텔링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2014년 12월 30일(화)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우정'을 주제로 하여 A3 종이에 사진 3~4장을 편집 후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지역 고등학생 100여 명이 지원했다.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 20명의 입상자가 수상을 하였다. 이번 사진공모전을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우정에 대한 소중함과 스스로 작품을 만들며 성취감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울산YWCA | 김선양 팀장

제33회 정기총회 제33회 울산YWCA 정기총회가 1월 29일(목)에 YWCA 본관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는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2014년도 회계 감사 및 결산보고와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보고와 함께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검토 및 이사 인준과 헌장개정으로 진행되었다. 울산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취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단하며, 울산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YWCA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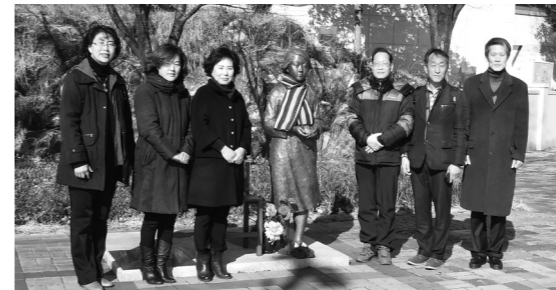
포항YWCA | 이에린 팀장

제35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1월 27일(화) 포항YWCA 강당에서 2014년 감사, 결산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포항YWCA 소망의집 박미숙 위원과 20년 이상 돌봄활동 회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장광복, 이영숙 위원을 신임이사로 승인했다. 15대 김인자회장이 임, 16대 김주원회장이 취임하였으며,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이루어 이웃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2015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거제YWCA | 김의향 부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헌판식과 1주년 기념식 거제시여성회와 공동대표인 거제Y는 거제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제문화예술회관 공원에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 헌판식과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아울러 거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전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전과 애니메이션 영상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김해센텀요양병원 업무체결 협약 체결, 효 캠페인 2014년 12월 2일(화) 김해YWCA와 센텀요양병원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업무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효 캠페인, 진로비 혜택, 몽땅음식(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시락 나누기), YWCA장터 돕기, 재능기부, 회원가입 등이며 협약사항의 첫 번째



실천으로 효 캠페인을 1월 7일(수) 삼계동 장신대 지하철 앞 사거리에서 진행했다. 추운날씨에 손은 꽁꽁 얼었지만 단 한분이라도 현수막 내용을 보고 부모님께 문안하였다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그 의미를 두고 마음만은 따뜻한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어린이집 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 1월 9일(금) 마산YWCA 강당에서 어린이집 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가 있었다. 함께 부르는 '가족송'을 오프닝으로 시작해 4세 바름반 친구들 중에서는 울음을 터트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7세 언니 오빠들은 역시 의젓하고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고 활기찬 울동을 선보이며 부모님의 찬사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까지 멋지고 능률한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로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제27회 정기총회 1월 27일(화)에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감사패, 자원지도자상, 자원봉사상, 평생회원패, 회원증모상 시상과 신임이사 인준을 하였다. 2015년에도 사천YWCA는 Y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양산 YWCA | 박경하 간사

신년하례회 열려

1월 13일(화) 임원진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으로 김정숙 사무국장의 사회로 신년하례회가 진행됐다. 1부 예배와 2부 새해 축하 메시지로 참석자들의 소개와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 간의 격려 속에서 새로운 한 해의 포부를 다지는 덕담을 나누며, 돌봄과 나눔의 정의평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진주 YWCA | 고명정 팀장

이주경험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이주여성의 삶과 꿈'

진주Y 다문화교육부는 12월 18일(목) 경남과기대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에서 130여 명의 이주여성과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이주경험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2회를 맞아 '이주여성의 삶과 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 내 70여 명의 이주민들이 스토리 공모를 제출했으며 5명의 이주여성이 스토리텔링 강연을 했다. 또한 악기, 몸짓 등 지역의 예술인과 이주여성들의 공연무대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행사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과 직장경험을 기탄없이 풀어내는 자리를 통해 지역의 다문화 공감운도를 높이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진해 YWCA | 정유민 간사

재활용가구 이용한 리폼교실 전시회

1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진해Y는 재활용가구를 이용한 포크아트(Folk Art) 리폼을 하여 전시했다. 판매대금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1년 급식비를 지원하는 나눔의 행사에 쓰여진다. 7명의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해 볼품 없는 가구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구입하러 온 시민들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의미있는 전시회였다.



창원 YWCA | 정미영 간사

고3을 위한 '내 꿈을 JOB자'

작년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장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내 꿈을 JOB자'라는 프로그램을 1월 6일(화)부터 1월 15일(목)까지 진행했다. 2주 동안 4회기 총 36시간 동안 약 120명의 창원 내 학생들이 참여해 여섯 분야의 직업 전문가들과 함께 직업 체험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제19회

추천을 받습니다!

- 시상대상**
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20일까지 방영된 공중파, 종편, 케이블 TV 프로그램 (장르 불문)
- 시상부문**
대상 / 여성 부문상 / 평화 부문상 / 특별상(Y-틴과 대학청년Y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 추천기간**
2015년 2월 16일(월)~3월 20일(금)
- 추천방법**
한국YWCA 홈페이지 연합회 뉴스 공지 참조
1. 한국YWCA 회원과 회원YWCA의 추천
2. 각 언론사 문화부 담당 기자 추천
3.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수상자 추천
4. 각 대학 신문방송학과/언론정보학과 추천
- 심사방법**
전문위원들의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영상물 심사, 3차 최종 심사로 진행
- 시상식**
2015년 4월 24일(금) 오전 11시 (장소 미정)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소개

한국YWCA연합회는 1996년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을 제정하여 시청자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제작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올해도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YWCA의 정신에 부합하는 TV 프로그램을 선정, '제19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